

"아니, 정말이야? 알버타에 독감 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캐나다에서 독감 (influenza)가 확인된 사람은 17명뿐이며, 알버타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일까지 캐나다의 독감양성 환자는 711명이었고 알버타엔 139건이 나왔다.

이를 두고 캘거리 최고 보건책임자인 디나 힌쇼 박사는 월요일 브리핑에서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철저한 알버타인들이 캐나다 전체 독감환자를 줄이는데 앞장섰다고 찬사를 보냈다.

캐나다에 독감 시즌이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전년에 비해 '예외적으로 낮다'고 보건당국은 말하고 있다.

힌쇼박사는 "지난해 이맘때 독감예방 접종을 맞은 알



버타인은 약 94만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110만명 넘었다"며 "현재까지 계절성 독감의 확진 환자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따라서 이번 시즌에 독감

과 관련된 입원이나 사망자도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2019-2020년 독감 시즌에

알버타에선 8,470명의 확진 환자와 41명의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

그러나 힌쇼박사는 COVID-19와 인플루엔자 감

염의 극적 차이, 장기요양시설 사망 등을 지적하며 "OVID가 개인과 주민 모두에서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불과 7개월 반 동안 49건의 급성 질환 치료 COVID가 발생했으며 42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최악의 급성 질환자 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캐나다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테레사 탐 박사는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취해진 공중 보건 조치가 계절성 독감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낮은 독감 수치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COVID-19를 늦추기 위해 취한 공중 보건 조치와 국제 여행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철밥통' 캘거리시 공무원 2중 3중 연금 납세자 연맹 '미친 짓' 비판



납세자연맹(CTF)은 캐나다 정보 요청의 권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2,201명의 캘거리시 공무원이 제2연금금을 받게 되고 또다

리아말로 시의원들과 시장들이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테라자노는 덧붙

테라자노는 의회가 제2, 제3의 연금을 일괄적으로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알버타시가 2020년 3차 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는 시의회가 이달 말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논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캘거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거리 시청에 있는 이제 2, 제3의 연금들, 그냥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테라자노는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지적과 대화를 해 왔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캘거리 시는 성명에서 근로자들에게 일관된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보충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당사자의 12%가 참여하는 캘거리시의 보조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연금 총당기간 전체 급여에 대해 2%의 일관된 연금공식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적으로 구축된다"고 밝혔다. 직원은 사실상 중복 연금수당을 받지 않는다고도 해명했다.

최근 몇 년간 조치 차환, 제롬 파카스 등 시의원들은 2017년 시의회 가입 당시 시의회 연금과 인수위 수당을 거부하는 등 시 연금에 대해 거침없는 입장을 보여왔다.

CTF 보고서는 3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알버타 자치구를 대상으로 리서치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알버타 납세자 기부금에서 2차 연금과 3차 연금이 2,48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거리도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제2, 제3연금금에 대해 에드먼턴 시는 430만 달러, 에어트리 시는 1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코로나 속보 : BC 주지사 캐나다 내에서 비필수여행 제한 요구



성반응을 보였지만, 양성 COVID-19 사례에 밀접하게 접촉한 후 적어도 11월 23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존 호건BC 주지사는 캐나다 내에서 비필수적인 여행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알버타의 연락 추적 앱이 노출을 추적하는 데만 이미 19차례 사용됐다고 알버타 헬스 측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부 캘거리 식당과 술집들은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AHS는 월요일부터 급성 질환 진료소 방문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모더나는 오늘 아침 자사의 COVID-19 백신이 94.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버타는 수요일인 19일에 COVID-19의 신규 확진자 730명과 11명의 신규 사망자를 보고했다.이에 따라 알버타에는 10,057명의 활성 환자가 있다.

타일러 산드로 보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알버타가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총 68만 회 이상의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주에서는 증가하는 사례와 함께 크리스마스 휴

학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데이나 힌쇼 알버타 최고 의료책임자는 수요일에 알버타의 학교 일정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넬시 캘거리시장은 28일 캘거리에서 COVID-19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케니 알버타 주지사는 COVID-19 검사 결과 음

캘거리 스탬피드 새 포스터 공개하며 컴백 의지

캘거리 스탬피드가 2021년 다시 열 계획을 밝히며 복원력과 낙천성을 상징하는 젊은 여성 작품을 내년 포스터로 선정했다.

포스터는 렉시 힐더만의 작품으로 지나가는 폭풍 구름 앞에 서 있는 그녀의 화려한 의상에서 흐르는 무지개 리본을 가진 젊은 원주민 무용수가 등장한다.

캘거리 스탬피드 이사회의 스티브 맥도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것은 놀라운 이미지



2020년 스탬피드는 COVID-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행사 실무자들은 17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공중 보건 명령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내년 열리는 연례 10일 기념행사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너는 "포스터 선정은 행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현재 스탬피드 2021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YOU & EYE OPTICAL Dr. Martin Kwon

권혁진 가정안과

한국어 및 영어 안과진료
 눈병 및 응급진료 Walk-In
 눈 정기건강검진 및 시력검사
 콘택트렌즈, 안경 및 선글래스

2984 Ellwood Drive SW Edmonton (780) 440-2239

기경락 마사지

Young Kim
 RMT, Doctor of TCM

모든 의료보험 사용가능

추나요법 20년 경력

예약 : 4038702776
 72 Arbour Crest Dr. NW Calgary

STAMPEDE 한인약국

약사 임채현 (Terrie)
403.460.4646
 19,3616-52 Ave NW
 (코리아나마켓 옆)

월~금 : 9-6
 토 : 10-3

알버타 인술 39년

Dr. Wan Mo Chung
 Pleasantview Professional Building
 #304, 11044-51 Avenue, Edmonton
 TEL : (780) 434-1143

정완모 메디칼 센터

Koryo Optical

고려프라자 안경원

"눈의 소중함 & 패션의 완성"

패키지 \$145 | 어휘이 패키지 \$125

403-228-6878
 1324 10 Avenue SW, Calgary

ACUSPORTS
 PAIN-REHABILITATION-CLINIC
 "YOUR PAIN STOPS HERE"

아큐스스포츠

원장 김보목
 • 침술요법
 • 카이로프랙틱
 • 마사지테라피

통증 재활 클리닉
 www.acusports.ca
 acusports165@gmail.com

Macedon Place Unit 201
 5920 Macedon Trail SW Calgary
 Call. 587-700-9907
 Phone. 587-331-922